

3 월 15 일 2026 년



회복과 새로운 부흥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조정욱 집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보배를 담은 그리스도인 (고후 4: 7-10) 윤성환 목사

결단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푹는 일어서사: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주님이 원하시면” (누가복음 5:12-13)

오늘 본문에는 나병에 걸렸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고침 받기를 구하는 고백으로 고침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12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병자들의 간청과는 달랐습니다. 12 절을 다시 보면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라고 말합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환자가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은 자신의 병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죄인 취급을 하여 배척하고 경멸하는 병이기에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실 마음, 고쳐주실 의향이 있으실까?” 라는 의심과 생각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이 나병환자는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 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고쳐 주시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배척하고 돌을 던질 수도 있다는 의심 마음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고 쫓아내도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 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간청한 것입니다. 어떤 처분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병 환자가 보인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 주님의 처분을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치료하심, 회복하심,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화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설교자** - 오늘 예배 설교 말씀은 섬기는 교회 윤성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이진수 목사님은 3/14-16 달라스 방문 중이십니다.
3. **대심방** - 대 심방 중입니다. 심방에 동참해 주십시오.
4. **전도팀** - 전도팀에서 나가는 전도표가 게시판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날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5. **전도회 월례회** - 3/29 주일은 전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6. **교회 대청소** - 교회 봄 대청소가 3 월 29 일 주일 예배후에 있습니다 편안한 복장 준비해 주시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7. **부활절** - 4 월 5 일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하심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사 및 모임

3 월	성찬식	3 월 1 일 (주일)
3 월	부장/운영위 모임	3 월 1 일 (주일)
4 월	부활절 예배	4 월 5 일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3/15	3/22	3/29	4/05
대표기도	조정욱	조현숙	차은희	김영란
헌화성도	이강선	이강선	유경주	차은희
봉사당번	믿음구역	믿음구역	소망구역	소망구역

예배출석자 및 헌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헌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김영란	510-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7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설경 통독방	52 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삶

지난 주에 읽었던 글 중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 준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
칼럼에 올려 봅니다.

지금 나에게 불어 오는
바람이 싫다 해서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원치 않든
겨울이라는 추위가 오면 받아 들여야 하고,
폭설이 내려 지금 내가 가야할 길의
발목을 잡는다 하여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오늘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못했다고
짜증을 낸다면 나만 손해 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해도
지금 주어진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빨리 포기하고 또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내 생각에 옳다 해서
자기 앞에 주어진 섭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행하는 것은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의 옳은 것에 집착 하지 마세요

정말 옳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결국 한줌
흄으로 사라지는 존재의 의미를 안다면
내 옳은 것 보다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i>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i>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